Before

영어교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4기 수료

1998년 모정마을로 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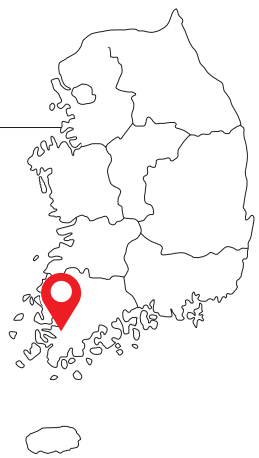
중·고 연계형 늦봄학교 교사/교감/교장('06~'19년)
영암신문 편집위원('08년~)
모정마을 이장(2년 역임)
모정행복마을 추진위원장('10년~)
영암문화원 영암학 연구원('18년~)
모정마을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대표('20년~)
월인당 농촌유학센터 운영('21년~)

전남 영암군 모정마을
김창오 추진위원장

전라남도 영암군 모정마을 김창오 활동가는 1998년 가족과 귀향하여
농촌생활을 이어가던 중 2010년 마을가꾸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전통문화와 자연생태 환경 등의 농촌다움이 보존되는 마을을 지향하며
예술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자립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과 놀이가 융합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축제 등을 개발·추진하였습니다.
신명나는 마을을 주도하는 한편 지역교육공동체에도 힘쓰며
모정마을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창오 추진위원장의 활동지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41-1 모정마을
주요자원	모정두레체험관, 연꽃탐방데크, 행복마을 숲, 모정풍물단, 모정차회 문화동아리, 사계절 마을 축제, 원풍망월 주민예술학교, 농촌유학센터, 작은도서관, 책 모정마을 이야기 등



▲ 마을전경

"

살기 좋은 마을로의
발전을 이끌며 노력하는 활동가

"

▲ 용줄꼬기 복원 모습

▲ 콩쿠르 대회

마을 원형 보존을 위한 마을 디자인

김창오 활동가는 모정마을의 원형과 정취를 훼손시키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도로 마을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만 평 규모의 모정저수지 일원, 중심 주거공간인 고택과 벽화의 거리, 폐교 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한옥마을 조성사업 단지가 그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업은 이러한 분할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마을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문화자립도 향상 및 지역 연대

민요교실·풍물놀이·차회활동·사계절 마을축제·원풍망월 주민예술학교·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모정마을과 주민들의 문화자립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긍심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체 역량으로 연꽃축제와 콩쿠르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는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선주민과 후주민 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냈으며 모정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창의적인 공동체 정신은 이웃마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 한옥단지

▲ 2016년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대화모임 (모정두레체험관)

재능이 많은 모정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주민예술학교와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주민강사를 통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대도시 아이들이 농촌의 생활을 경험하고, 자립심과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오 활동가는 원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의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귀향 후 20년 동안 모정마을의 역사·문화·인물·자연환경을 조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마을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주민들과 함께한 마을공동체 가꾸기 활동을 함께 모아서 '모정마을 이야기'라는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더불어 폐교(군서남초등학교) 부지에 체류형 농촌유학 주택을 지어 모범적인 농촌유학 마을로 성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과정에 있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향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던 김창오 활동가는 귀향한 전력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 도시 향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재경모정향우회·재광모정향우회와 수시로 만나 마을 소식을 전하고, 2010년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동참할 명분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향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함께 잔치를 벌이고, 향우들이 한옥단지 내에 매입원가로 집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도시 향우였던 세 가족과 4인이 귀향하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다른 향우들 또한 고향에서의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귀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2018년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